

나는 회충이다



李 純 炯

1 우리 회충의 알이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는 오로지 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식당문의 단속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 회충이 수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계승으로 우리 회충알을 계입에 밀어 넣으니까요. 한국과 같이 농사를 지을 때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는 지방에서는 전국도가 우리 회충알로 덮여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람의 50%가 우리 회충을 가지고 있다 하면, 약 1,500만 명이 될것입니다. 한국사람이 배속에

기르고 있는 우리 회충의 수는 평균 20마리라 하였으니 암컷의 수를 그 반으로 잡아 10마리라 할때, 한국내 여성회충의 총수는 1억 5,000만마리가 될 것입니다. 암회충 한마리의 산란수를 하루 10만개라 쳐더라도 하루에 한국에 뿌려지는 우리 회충알의 총수는 15조개나 됩니다.

이처럼 천문학적 숫자의 우리 회충알이 단 하루분만 한국에 뿌려진다 하여도 끔찍스러운 터인데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요일이나 국경일도 없이 뿌려지며, 이렇게 하기를 이미 단군 개국 이래 수백, 수천년을 계속해 왔으니 한국의 금수강산이야 말로 우리 회충들의 고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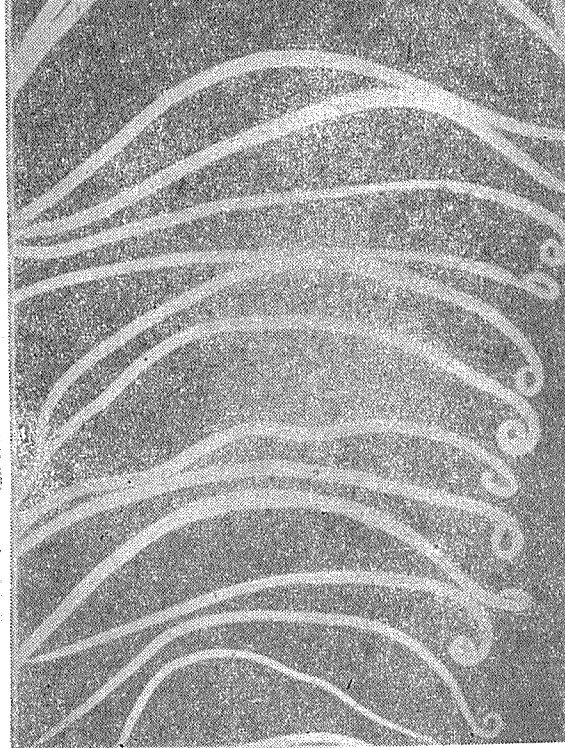
사람들은 제 손으로
제입에 우리 회충알을
넣고 있어요

아닌가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안
에 우리 회충알이 없는 땅은 한치도
없을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 회충들은 이른바
2 토양매개성 기생충이라 불리
웁니다. 토양매개성 기생충이
라 하면 우리 회충이외에도 편충, 십
이장충들과 같이 흙속에서 감염형이
되는 기생충을 일컫는데, 이 가운데
서도 우리회충이 가장 중요하고도 문
제가 되는 기생충이지요.

이와같이 우리 회충알들은 흙속 어
디에나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
어가는 것은 흙을 통해서 감염되는일
이 제일 많습니다. 요즈음에도 보면
골목안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놀고 있
습니다. 흙장난을 한다든지, 공치기
를 하든지 기타 다른 장난감을 가지
고 놀고 있습니다. 이때 흙속에 있던
우리 회충알이 손이나 손톱밑, 장난

감 등에 묻어서 어린이들이 그 손을 빨때, 또는 더러운 흙손
으로 음식을 쥐고 먹을때 입속으로 들어 갑니다. 아직도 한
국에는 재래식 변소가 많아 오물을 치울때 골목안에 오물
들이 많이 흐르게 되어 골목안을 더럽히게 됩니다. 또 이런
곳을 밟고 다니던 신발을 겨울에는 방숙 아랫목까지 들여 놓
는 집도 있어 여기서 떨어진 흙이 중내 그집 식구들 입안으
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우리 회충들이 봄때에는 그집 식구들
이 대변에 배출한 회충알이 그 집 앞마당이나 집앞에 뿌려지
고 그 집 아이나 식구들이 다시 그 회충알을 집어먹는 재미
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지요. 이런 상태를 학자들은 흔히
회충성환경이라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도시에서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집에서 배출한 인분을 자
기집 채소밭에 뿌려 여기서 거둔 채소를 먹을때 제입으로 회



회충의 수컷

같이 말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흙속에 숨어 있다가 흙장난하는
아이들이나 공치기 하는 아이들
의 입으로 직접 들어가기도

비 · 바람 · 下水 · 곤충에 의해서 알들은 넓
게 퍼집니다. 비가 오면 20일 사이에 약
1.5미터나 퍼져 나갑니다.

충알이 다시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달이가고 해가갈에 따
라 몸속에 우리 회충이 자꾸 자꾸 누적이 되고 붙어 갑니다.
이렇게 되면 배출하는 우리 회충알도 더 늘어나게 마련이죠.
이른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3 옛날에는 주로 우리 회충알이 인분으로 재배한 채소
를 날로 먹거나 김치를 담가 먹어서만 사람 몸속에 들
어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채소는
우리 회충의 전파에 큰 몫을 하고 있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흙이 우리 회충알로 더럽혀 지는것이고 흙이 우리 회충
전파의 공신(功臣)임을 꼭 기억하셔야만 되겠습니다. 한군데
가 더럽혀지면 그 다음에는 비, 바람, 하수, 곤충이나 사람
에 의하여 곧 그 근처가 더럽혀 집니다. 어떤 학자는 비가 오
면 총량이 20일에 약 1.5미터나 퍼지며 높이 30cm 까지 더럽
혀진다고 하니, 만일 배추밭에 인분을 뿌렸다 하면 그 뿌리
근처뿐 아니라, 인분방울이 배추속까지도 튀어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지요. 애들이 집들 어루곳에나 대변을 보게 되
면 그것이 온 집안뜰을 더럽히게 되는것도 상상이 될줄 믿습
니다.

4 우리 회충알은 크기가 50 μ (1000분지 50mm)정도가
므로 항상 흙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진흙(粘土)

의 고운 가루가 우리 회
충알 주위에 곱게 글고루
물어서 보호막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먼지도 말
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회
충알은 햇볕에 직접 쬐이
게 되면 곧 죽게 되기 때
문에 이 진흙의 보호막은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닙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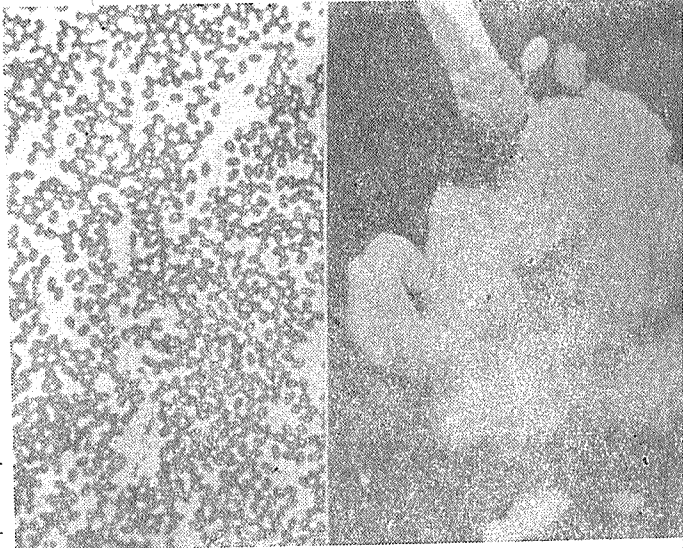
회충의 암컷

숫컷보다 크고 늘씬하다.
팔이 말리지 않고 승곳처럼 밀
을 것이 숫컷과 다르다.



다. 그래서 토질이 점토질인 지방에서는 사토질(砂土質)인 지방에서 보다 우리 회충이 만연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흙속에 있는 우리 회충 알은 -15°C 정도의 한국의 겨울날에도 살아 있을 수 있어 월동을 하며 다음해 봄에 기온이 15°C 쯤되면 다시 발육을 합니다. 여름의 건조와 더위에서도 한 두달은 넉근히 설 수 있으며 보통 2년정도는 흙



속에서 살아있으면서 사람속에 들어가지만 고매하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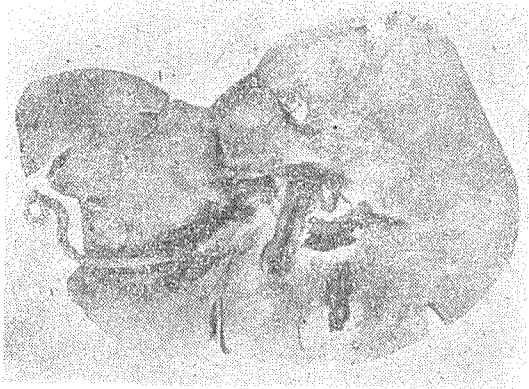
..... 우리 회충알이 열마
..... 5 나 저항성이 있느냐
.....

구요? 전회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회충알은 세겜의 특수한 옷을 입고 있어 건조와 추위에 잘 견딜뿐 아니라 화학약품에도 비교적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약한 호루마린은 우리 회충알을 키우는데 필요할 정도이고, 알콜, 붉은 염산, 양재물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크롤·칼키에서도 죽지않기 때문에 양식집에서 채소를 크롤·칼키로 소독한다 하여도 우리들은 꺾적도 없습니다. 붉은 염산속에서도 죽지않으니까 김치가 아무리 시어 꼬부라져도 우리 회충알은 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충알이 무엇에 약하냐구요? 이건 우리 회충의 생사에 관계되는 비밀이라 알려드리기가 곤란한데! 건강 독자들께만 살짝 말씀 드리지요. 우리 회충알은 열에 약하지요. 70°C 에서는 10초만에 죽고 95°C 에서는 1초 끓는 물에서는 당장 황천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회충을 미워하시는 분은 무엇이든지 끓여 잡수시면 됩니다. 채소를 어떻게 끓여만 먹느냐구요? 그러면 끓는 물에 잠깐 담갔다

회충의 알

(左) 한마리가 가지고 있는 알의 전부(성낭대자리와 비교해 보았다)
(右)소량의 알을 확대해 본것(검은 점들이 모두 알이다)

영하 15도의 겨울에도 꺼떡없이 살죠. 봄에 섭씨 15도가 되면 우리 세상이 에요. 건조와 더위에서도 2달은 넉근히 살죠.



알콜·양잿물 파워로는 우리를 죽일수 없죠.
우리가 무서워 하는게 무언지 아시겠어요?
물에요. 물. 특히 뜨거운 물이요.

간속에 파고 들어간 회충

우리 회충알을 잘 떨어지게 하는 작용과, 또 비누냄새가 나지 않도록 물로 여러번 씻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제가 없을 때는 물로 잘 씻는것이 제일이지요. 물처럼 좋은 약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로 씻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채소뿐 아니라, 사람들은 몸 특히 손을 잘 씻어야 합니다. 먼저 얘기한대로 우리 회충알은 더러운 손을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음식 먹기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연령별로 볼때도 흙장난을 많이 하고 재품을 가꾸지는 못하는 5~9세쯤의 어린이들에게 우리 회충이 제일 많습니다. 또 어린이에게서는 남자나 여자가 같이 우리 회충에 걸려 있지만 어른이 되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걸려있답니다. 왜냐구요? 회충성환경이 이루어진 집안에서 채소와 어린이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우리 회충에 걸려 있는지 않은지를 보면 어린이들의 감염상태를 알수도 있답니다.

..... 우리 회충에 걸린 인구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것 같
6 습니까? 대규모로 조사한 성적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만 스틀이란 분이 1947년에 발표한 성적을 보면 대략 짐작이 가고 그 이후에도 아마 극적인 변동은 없었을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세계인구 20억중 6억 4천 4백만명이 우리 회

가 잡수시면 되지요. 그것도 싫으세요?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흐르는 물에 아주 여러번 씻으십시오. 수도물을 세게 틀어놓고 씻으시면 좋을것입니다. 오즈음 나온 세제를 쓰면 더욱 좋지요. 그러나 세제를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회충을 죽이는 작용은 없으니까요. 이 세제의 효과는 비누와 같아서 채소에 붙은 우

세계인구 20억중 6억이 우리를 몸속에 기르고 있는데, 그 중 5억은 아시아 사람들이예요. 아시아야말로 우리들의 즐거운 왕국이죠.

충을 갖고 있는데 그중 아시아에 4억 8천 8백만명이 살고 있었다니 아시아야말로 우리들의 천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그러면 우리 회충을 없애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7. 우리 회충들로서는 자멸을 초래하는 방법이지만 말씀을 드리지요. 첫째는 개인위생입니다. 손을 잘 씻고, 음식을 깨끗이 조리 하며 외식을 삼가는등이 그 내용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조사해보면 손톱밑에서나 손에서 5~20%가량 우리 회충알이 검출된답니다. 먼지가 날때 코로 들어마셔지는 수도 있다합니다. 둘째는 환경위생으로 인분의 처리를 적절히 하고 흙과 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채소등 음식물이 인분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분비료를 먹지말아야 함은 물론 파리, 바퀴 등 곤충과 쥐같은 동물들의 구제도 결하여야 겠지요. 집안에서는 어린이들의 배변습관을 교육시키는 일도 중요하며 변소구조의 개량도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수세식변소의 보급율과 우리 회충의 발현율과는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지요. 셋째는 집단구충으로 전회에 말씀드린 여러원칙과 좋은 구충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긴 겨울과 여름장마로 그 기간동안에는 우리 회충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대개 5월과 10월에 최고로 만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충은 6~7월과 11월경에 실시하는것이 좋겠으나, 아니면 1년에 2회 봄·가을에 아무

장폐쇄증을 일으킨 회충장이 회충으로 막혀버렸다.

때나 온식구가 구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교육입니다. 우리 회충들의 생활사 생태, 역학, 병리, 치료, 예방등의 지식을 각급 학교에서 교육하는일이 우리 회충을 가장 빨리 없애는 지름길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필자=서울醫大 기생충학교실 조교수·醫博>

